

## 동화에서 계모의 역할과 필요성 -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를 중심으로

류다영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 The Role and Necessity of a Stepmother in Fairy Tales Focused on “Kongji and Patji” and “Cinderella”

Da-Young Ryu  
Department of Liberal Arts,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계모가 등장하는 비슷한 플롯의 동화 두 편,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를 분석하여 동화 속 계모의 역할을 알아보고 두 동화에서 계모의 차이점을 살펴봄, 이러한 계모의등장이 아동에게는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여 계모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계모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이며 주인공에게 악행을 저지르지만, 주인공에게 주는 과제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경쟁 구도 등에서 차이점을 보였으며, 주인공이 결혼한 후에 계모가 저지르는 악행에서도 차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는 계모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필요성이 있었다. 우선 스스로 심리적 갈등을 대처할 수 없는 아동은 친부모에게 가지게 되는 죄의식과 심리적 갈등을 계모에게 투영하고 마음껏 화를 내어 발산함으로써 모순된 정서를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여 고통과 슬픔, 고난 등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며, 마지막으로 계모가 등장하는 동화는 결국 악인이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권선징악의 교훈적 의미를 배우게 하고,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wo fairy tales of similar plots in which stepmothers appear, "Kongji and Patji" and "Cinderella". The purpose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a stepmother in a fairy tale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epmothers in the two fairy tales mentioned above. Stepmothers in "Kongji and Patji" and "Cinderella" show similar tendencie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the tasks, as well as the evil actions of the stepmother after marriage. However, stepmothers who commit these cruel evil deeds were necessary for several reasons. First of all, children who cannot cope with psychological conflicts themselves can cope with contradictory emotions by projecting the guilt and psychological conflicts onto their stepmother and exposing themselves to their anger. Besides, they can understand the diversity of life and learn how to overcome pain, sorrow, and hardship. A fairy tale in which a stepmother plays a role is of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teaches lessons to children by showing that in the end, the wicked are punished and good people live a happy life. This helps the child to have a positive self-identity.

**Keywords** : Stepmother, Kongji and Patji, Cinderella, Fairy Tale, Necessity of Stepmother

---

본 논문은 중원대학교 교내학술비 지원에 의한 것임. (과제관리번호: 2019-051)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Jungwon Univ.)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February 17, 2021

Revised March 15, 2021

Accepted June 4, 2021

Published June 30, 2021

## 1. 서론

동화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주제, 인물, 사건, 내용 등으로 구성하여 아동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다. 따라서 동화는 오랜 세월이 걸쳐 아동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매체가 되어 왔으며 아동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주었다. 또한 동화는 아동에게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통한 새로운 감수성을 불러오게 하고, 이를 통해 유연한 사유를 제공하여 아동의 가치관과 태도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1].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동화에서 보여주는 인물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각 나라의 민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성이 포함되어 있어 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다[2]. 그런데 이러한 도덕과 윤리성은 모든 나라에 공통적이고 보편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랑과 연민, 질투와 증오, 고뇌 등과 같은 정서 및 사회문화 발전과정은 유사하기 때문이다[3].

동화는 대체로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등으로 대비되는 내용을 통해 주인공의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로움을 강조한다. 그래서 주인공의 선한 성품에 대조되는 악인이 항상 등장하는데,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악인으로 계모가 있다. 동화 속 계모는 주인공을 구박하고 괴롭히며 마치 하인처럼 일을 부린다. 그리고, 계모의 친자녀 역시 계모와 함께 주인공을 괴롭힌다. 주인공은 이와 같은 극단적 성향의 계모와 다른 형제들에 의해 고난과 위기를 겪지만,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극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행복을 실현한다.

이와 같이 동화가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고, 권선징악 및 인과응보와 같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동화가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가지게 되며 형성되기 시작하는 가치관과 신념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그 형태가 굳어진다고 한다[4]. 따라서 아동들은 외부로부터 잘못된 편견에 물들기 쉽고, 이렇게 습득된 편견은 고착화되어 성인이 되어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3].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이 쉽게 접하는 동화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모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의붓아들을 사랑한 계모인 파이드라(Phaedra)가 있고, 전처의 자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이노(Ino)라는 계모도 존재했다. 이러한 사악한 계모의 이야기는 서양과 동양의 동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래동화로는 『콩쥐팥쥐』와 『장화홍련전』이 있고, 서양

에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이 있다. 이들 동화에 등장하는 계모들의 행태는 모두 사악한 면을 보이지만,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편의 동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를 비교 분석하여 이 두 동화에서의 계모들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계모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두 동화 모두 오랜 시간이 지나 책으로 발간하였기 때문에 원작의 내용에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에게 알려진 내용 이외에 잔혹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장 잘 읽혀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 2. 본론

### 2.1 계모의 등장

#### 2.1.1 왜 계모인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뿐 아니라 서양에서 전해내려오는 동화에서도 계모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동화에서 사악한 행위를 하고 결국 이에 대한 혹독한 댓가를 치르는 사람은 항상 계모이다. 이는 서양이나 동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왜 계부가 아니라 계모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일까? 아버지는 계모의 행동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동조하지만 이에 대해 처벌을 받는 내용을 찾기는 힘들다. 즉, 대체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여성으로 특정하는 동화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은 문화적 유전자로 전해 내려온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계모형 이야기가 조선후기에 급격히 유행하였는데, 이는 조선 후기 즈음에 처가에 거주하는 관행이 소멸하고, 남성이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됨으로써 더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계모가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활발해지는 현상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에서 가족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이혼이나 재혼을 통해 가족이 재구성될 경우 계모는 애정 없이 의무감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 또한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같은 편견은 현대 사회에까지도 이어진다. 실제 ‘계모’와 관련한 빅데이터 연관 검색 단어를 보면 ‘학대’, ‘폭행’, ‘구박’ 등의 부정적인 형용사가 나타났으며, 트위터와 뉴스 텍스트에

서도 고착화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5]. 결국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계모'라는 인식은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화에 계모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진근과 김기영은 세 가지 이유를 거론하였다. 첫째, 의료여건이 열악했던 과거에는 여성이 출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서양에서의 의붓가족은 친모의 죽음에 의한 결과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을 얼마 보지 못했던 친모는 선한 여성으로 각인되고, 계모는 애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죄의식 없이 위해를 가하며, 친부는 우유부단하고 아둔해서 계모의 속내를 감지하지 못한다. 둘째, 계부는 동화의 수준에 비해서 계모보다 너무 큰 공포감을 연상시킴에 따라 악인의 요소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터커(Tucker)에 따르면 사악한 계모에 대한 편견은 근거가 없고, 문학작품에서 계모가 악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계부를 악역으로 할 때보다 더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문학적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6]. 계부의 사악한 폭력성은 아동에게, 더 나아가 동심을 가지고 동화를 읽는 어른에게 너무나 큰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어 극적인 요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셋째, 계부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이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5]. 따라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하며 집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인으로 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전 세계적으로 가부장적인 전통은 계모가 계부보다 더 사악할 것이라는 막연한 고정관념을 가져다준다.

또한, 계모가 사악한 존재의 전형이 되는 배경은 심리학적 관점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계모가 등장하는 유형의 이야기들은 계모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기 위해 친자녀인 주인공을 괴롭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남성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여성들이 남편의 사랑을 전실 자식들이 독차지함으로써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의식에 의한 망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계모의 증오심은 시기심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질투와 시기심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들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진다. 질투는 대상에 대한 부러움을 의미하며, 시기심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사실에 대해 슬퍼하여 나타나는 마음이다[8]. 『콩쥐팍쥐』와 『신데렐라』에서 모두 계모와 그녀의 딸은 못생기고 추한 이미지로 나타나며, 반면 주인공은 아름답고 착한 성격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계모는 자신이 가지지 못

한 아름다움에 대해 시기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시기심은 그녀의 사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사악함은 못생긴 외모로 표현되어 못생긴 외모는 나쁘다는 이미지로 연결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의 아름다운 외모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그녀에게 모든 행운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계모는 자신의 딸보다 예쁜 주인공을 참을 수가 없어 그녀를 시기하고, 이러한 시기심이 주인공에게 악행을 자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며,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인 영향을 내비친다. 그러므로 사회구조적인 이유, 심리학적 이유, 아이들에게 주는 공포감의 정도와 교훈을 줄 수 있는 정도 등의 이유로 계부가 아닌 계모가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동화에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 2.1.2 계모형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

이러한 계모형 문학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우선, 계모형 문학이란 계모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가정 내적 갈등, 특히 계모와 전처 소생 간의 갈등이 작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설 유형을 말하는데[9], 이러한 계모형 문학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어릴 때 생모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자녀가 있는 새로운 부인을 맞아 계모와 함께 살게 되는 가운데, 계모와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학대하지만 결국에는 계모가 처벌을 받고 주인공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공통된 서사 구조를 가진다. 계모와 전처소생과의 가정내적 갈등을 소재로 하는 계모형 문학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양의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콩쥐팍쥐』, 『장화홍련전』 등이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학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데, 『섭한』(중국), 『카종과 할록』(베트남), 『마리아』(필리핀), 『재투성이 소녀 마리아』(칠레), 『웨테메 아가씨』(이란), 『의붓딸』(리투아니아), 『바왕메라 바왕푸티』(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계모형 문학은 그동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왔는데, Anna Miller 외 2인은 의붓 가족도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고정 관념과 사악한 계모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였으며[10], Minna Murtorinne-Lahtinen 외 1인은 계모가 가족 안에서 자신의 소속을 구성하고 협상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는데, 계모의 소속감 향상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11]. 또한,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등의 대표적인 계모형 동화를 언어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계모들이 겉으로 사악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에서 불안감이 드러난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12].

국내 연구로는 계모형 소설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모되었는지에 대한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9], 계모 이야기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가부장제가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다고 주장하며, 가부장제의 약화라는 위기를 계모에게 전가하고 통합하여 계모를 가정에서 소외시키는 결말과 계모를 악인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았다[13]. 또한, 트위터와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있는데,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린 시절 접하게 되는 동화의 키워드와 연관이 있으며 트위터와 뉴스 기사를 분석한 결과 계모에 대한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계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5].

많은 계모형 문학 중 비슷한 플롯을 보이고 있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에 대한 그 동안의 비교 연구는 동화 인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14], 두 동화가 유아에게 주는 발달심리학적 의미[15], 동화 속에 나타난 부부 갈등 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16], 동아시아 신데렐라 유형의 이야기 속 젠더문제와 새로운 여성상[17]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등장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그 중 계모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2.2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계모 비교

### 2.2.1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계모들의 공통점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계모들은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공통적인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남편이 알지 못하게 자신의 딸과 주인공을 차별 대우하며 주인공을 괴롭힌다. 자신의 딸에게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제공하면서도 주인공에게는 제대로 된 음식이나 옷을 주지 않는다. 게다가 주인공을 괴롭히기 위한 어려운 노동과 과제를 부여한다.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과제는 혼자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에 대한 이면에는 계모가 전처자식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은 악한 욕망에 있다고 할 수 있다[18]. 이와 같은 무리한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등장하는데, 『콩쥐팥쥐』에서는 소, 두꺼비, 새

등이 나타나 콩쥐를 도와주며, 『신데렐라』에서는 요정, 새 등이 등장하여 일을 도와준다. 이러한 조력자는 주인공을 괴롭히려는 계모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 계모가 주인공에게 더 강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자극제가 된다.

두 동화 모두에서 계모는 주인공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잔치나 무도회에 못가게 하기 위해 다양한 계락을 꾸미고 괴롭히며, 자신의 딸이 감사나 왕자님의 눈에 띄어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계모는 자신의 친딸들에 대한 사랑은 나아가 주인공이 떨어뜨린 신발을 자신의 딸에게 억지로 신겨서 귀인이 찾는 사람이 자신의 딸인 것처럼 위장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고무신과 유리구두는 이야기를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행운의 고리 역할을 한다. 즉 신발은 주인공과 귀인의 결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남녀간의 사랑의 매개물[19]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중국에서 전족의 풍습이 있었을 정도로 여자들이 작은 신을 신기 위해 애썼다. 이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작고 아름다운 발이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문화이다. 『콩쥐팥쥐』나 『신데렐라』에서 모두 작은 신발이 발에 꼭 맞아야 하고, 신발이 예쁘고 작다는 것은 그 여성이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 착하고 선하다는 의미의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다. 신발은 신어 발에 꼭 맞는다는 것을 보여준 후 주인공은 천한 신분에서 갑자기 귀한 신분으로 상승되며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이와 같은 해피엔딩은 남성에 의해 여성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류의 동화를 모두 '신데렐라'형이라 지칭하며 남성에 의해 부과 권력을 가지려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화에서 이러한 결말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결국 두 동화 모두 계모의 다양한 책략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귀인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 2.2.2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계모들의 차이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에서 등장하는 계모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성품을 지녔으며 비슷한 악행을 자행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두 동화의 계모 모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 노력하지만 『콩쥐팥쥐』에서는 가사일을 잘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신데렐라』에서는 자신과 딸의 외적인 아름다움으

로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콩쥐팍쥐』에서 계모는 남편에게 “팍쥐는 일을 잘하고 부지런한데 콩쥐는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팍쥐가 콩쥐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쓰는 반면, 외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는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일을 잘하는 것이 가치 판단의 우선 기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20]. 이는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데렐라』에서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신데렐라와 뚱뚱하고 못생긴 계모의 두 딸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딸들에게 더 예쁜 옷을 입혀가며 아름다움을 강조하려 애를 쓴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계모가 데리고 오는 자녀 수의 차이이다. 『콩쥐팍쥐』에서는 계모가 한 명의 자녀를 데리고 오지만, 『신데렐라』에서는 두 명의 자녀를 데려오므로 써 약인의 세력의 힘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신데렐라』는 의붓딸이 두 명이나 등장하는데, 그만큼 괴롭히는 존재가 더 많기 때문에 악에 대한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콩쥐팍쥐』에서는 팍쥐라는 의붓딸의 이름이 제목에서부터 거론되지만, 신데렐라에서는 두 딸의 이름(아나스타샤 Anastasia, 드리젤라 Drizella)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게다가 『신데렐라』에서 주인공 신데렐라는 본명이 아니다. 신데렐라의 본명은 엘라(Ella)이지만 작품에서 그녀의 본명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으며 그녀의 본명을 아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다.

계모가 주인공에게 주는 과제 부분에서도 두 동화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콩쥐팍쥐』에서 계모는 콩쥐 뿐 아니라 팍쥐에게도 같은 일을 시키지만, 『신데렐라』에서 계모는 의붓 언니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 물론, 일의 양으로 봤을 때 콩쥐보다 팍쥐의 일이 훨씬 적고, 콩쥐에게 나무 호미를 주고 팍쥐에게는 쇠 호미를 주는 등 팍쥐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경쟁시키는 등 불평등한 형태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콩쥐와 팍쥐는 대척점을 이루며 경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신데렐라』에서 계모는 자신의 딸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않고, 오직 신데렐라에게만 일을 시키고 있다. 또한 과제의 내용을 보면 『콩쥐팍쥐』에서 나오는 밭매기, 물건기, 베짜기 등은 우리의 농경사회의 노동과 결부되는 일이다. 하지만 『신데렐라』에서는 잣더미 속에서 콩을 골라내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황금매를 가져오라는 등의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오로지 신데렐라를 괴롭히기 위한 생산성이 없는 노동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는 일이 시키지 않아 의붓딸과의 경쟁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 주인공이 어려운 노역을 할 때 도와주는 조력자의 유형도 차이가 있는데, 『신데렐라』에서 멋진 옷을 입게 해주고 마차도 마련해주는 요정은 죽은 친모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콩쥐팍쥐』에서는 죽은 친모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대신 『콩쥐팍쥐』에서는 콩쥐를 도와주는 동물들이 콩쥐의 친어머니를 대신해서 계모와 팍쥐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데, 각 과제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동물들인 소, 두꺼비, 참새 등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서양과 동양의 사고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서양은 이성적 정신의 세계와 현실적 경험의 세계를 나누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현존하지 않는 조력자가 출현하여 주인공을 돕는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현실세계에서 찾지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조력자로 나온다. 예쁜 옷과 신발을 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주는 암소는 어머니 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콩쥐가 구멍 난 독에 물을 채울 때 구멍을 막아 도움을 준 두꺼비는 옛 이야기에서부터 전해내려오듯이 사람을 구해내는 보은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소와 두꺼비가 등장하여 주인공을 도와주는 상황은 우리 민족의 의식과 민간신앙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계모가 자신의 딸만을 데리고 가는 잔치와 무도회의 공간에서도 『콩쥐팍쥐』와 『신데렐라』는 차이를 보인다. 『콩쥐팍쥐』는 외가가 설정되고, 『신데렐라』는 왕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공간의 차이에 따라 주인공이 결혼하게 되는 대상인 귀인이 『콩쥐팍쥐』는 감사로 나오는 것에 비해, 『신데렐라』는 왕자이다. 서양에서는 왕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다소 과장된 바람이 이상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마을의 감사와 결혼하려고 하는 비교적 소박한 바람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콩쥐팍쥐』는 일회성을 가지는 데 비하여 『신데렐라』는 여러 번 무도회가 열린다. 서양은 무도회 등의 파티 문화가 예전부터 발달되어 있으며, 이성과의 교제에 대해서 개방적 이므로 언제든지 이성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외출을 해서 남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무도회를 세 번이나 참석해서 마지막 날 신발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콩쥐는 외가 잔치에 가다가 감사의 도임 행차를 보게되고 놀라서 빨리 걸어가다가 신발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나타난다. 귀인이 신발의 주인을 찾게 되는 상황에서 계모의 행동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콩쥐팍쥐』에서는 팍쥐에게 신을 신겼을 때 신발이 맞지 않아 그냥 포기하는 반면,

『신데렐라』에서는 딸의 발가락과 뒤꿈치를 칼로 베어낼 정도로 잔인하고 집요하게 신발을 신기려는 계모의 모습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두 동화에서 주인공의 결혼 후 계모의 역할에서 차이점이 있다. 『신데렐라』는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하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는 데 비해 『콩쥐팥쥐』는 콩쥐의 결혼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더 흥미 있게 묘사하고 있다. 『콩쥐팥쥐』에서는 계모와 팥쥐가 콩쥐를 꺾어 내어 연당의 못에 빠뜨려 죽이고 팥쥐가 콩쥐 행세를 해 감사를 속이고 함께 살게 되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된다. 『콩쥐팥쥐』에서 계모는 『신데렐라』의 계모와 다르게 살인을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행동을 한다. 물론 『신데렐라』의 결말이 행복한 결혼인 것과 마찬가지로 『콩쥐팥쥐』도 콩쥐가 죽은 뒤 다시 환생함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콩쥐팥쥐』 이야기의 핵심은 콩쥐가 결혼한 후에 이루어지는 계모와 팥쥐의 괴롭힘에 있다. 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잔혹하여 아동용 도서에서는 삭제되고, 『신데렐라』처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계모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differences between stepmothers

Differences		Kongji and Patji	Cinderella
1	Elements of wanting to be recognized by the husband	Work ability	Outward beauty
2	Number of stepmoter's daughters	One	Two
3	Whether to assign assignments to the stepmother's daughter	Giving assignments to her daughter	Don't give assignments to her daughters
4	The motif of the assignment	Tasks related to agricultural society	Tasks just for harassment without productivity
5	Where the party takes place	The main character's maternal village	Palace
6	Wearing shoes to daughter	Give up when the shoe doesn't fit	Trying to wear the shoe while cutting the heel with a knife
7	Stepmother's behavior after marriage	Conjurer commits evil deeds until after marriage	No content after marriage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계모들은 여러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화 내용의 전개상 그리고 문화적 차이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2.3 동화에서 계모의 필요성

동화는 아동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 안에는 아동의 언어능력 증진을 포함하여 감성교육과 도덕성 및 사회성 등 다양한 측면을 발달시키려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성장을 위해 동화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사악한 계모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동에게 계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왜 계모가 등장하는 동화가 꾸준히 나타나고 읽혀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동화를 통해 아동이 체험하는 정서·심리적 영역을 생각해봐야 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가정의 아이는 대부분 가족 로맨스라는 심리 상태를 겪는다고 한다. 가족 로맨스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어린 아이가 “지금 있는 내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야.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엔가 멀리 가서. 아주아주 잘 살고 계시고 나를 애타게 찾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 즉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모에 억압돼 있던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다시 예속되려는 환상’을 의미한다[21].

아이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뭐든지 다 해주던 부모가 갑자기 이런저런 일을 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하며 꾸중을 하고 체벌까지도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는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수시로 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랑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귀여워해 주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여 자신을 야단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자신을 사랑하던 부모가 이유없이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수시로 자꾸 변하는 ‘부모’라는 사람은 아이 입장에서 정말로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아동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갑자기 닥치게 되는 심리적 갈등에 대처하기 어렵다.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심리적 갈등은 밖으로 드러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을 귀여워해주는 부모와 호통치는 부모를 그들의 머릿속에서 분리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무의식적인 방어막을 친다. 이는 그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을 방어하

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아동은 사랑하는 부모와 무서운 부모를 자신의 내면에서 두 가지 인격체로 분리하게 되고, 무서운 부모는 동화 속에서 계모, 마녀, 괴물 등의 인물로 투영하게 된다. 동화 속의 무서운 존재들은 아이의 공포를 형상화한 것으로, 분노하는 부모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아이는 야단맞을 때마다 진짜 자기 부모가 아니라 동화 속의 무서운 존재가 나타났다고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최소화한다[22]. 이러한 아동의 심리적 감정 작용에 대해서 심리학자 베텔하임(Bettelheim)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옛이야기의 전형적인 구조인, 선한 엄마와 사악한 계모는 아동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그것은 친엄마가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닐 때, 항상 내면에 좋은 엄마를 따로 간직한 상태로 사악한 계모에게 마음껏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옛이야기는 아동이 자신의 모순적인 감정들을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만약 그런 방법이 없다면 그 모순된 정서들은 이제 겨우 통합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아동을 압도해 버리고 말 것이다. 사악한 계모의 환상은 착한 엄마의 이미지를 때묻지 않게 보존하게 할 뿐 아니라, 엄마에게 분노의 감정이나 사악한 소망을 가졌던 것에 대한 죄의식을 없애준다. 그 죄의식이 남아있으면 엄마와의 원만한 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23]

이처럼 아동의 마음 깊은 곳에는 원시적인 충동이나 거친 감정이 부리를 박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이나 갈등이 생겨난다[24]. 이러한 경우 아동은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부정적 감정들을 재체험하고 『콩쥐팍쥐』나 『신데렐라』와 같이 사악한 계모가 등장하는 동화 속 가상세계를 통해 이를 발산함으로써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아동에 대한 학대가 친부모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 친모인지 계모인지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으며, 성숙하지 못한 어른의 모습에 대한 사악함이 동화에서 계모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아동들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를 동화 속 계모를 통해 해소하고 현실의 어머니와는 다시 원만한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심리적인 면에서 아동에게 주는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25]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접근해보면, 동화에서 계모나 계부의 존재는 친부모를 사랑하는 아이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가 친부모에게 적대심을 느낄 때 수반되는 죄의식을 덜어주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26]. 현실에서의 잔혹한 일들은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지만, 동화 속에서의 이러한 잔혹성은 추상적인 차원으로

작용하면서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치유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화에서의 계모는 아동에게 죄의식을 가지게 하지 않고 갈등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동화에 등장하는 계모의 형상은 아동의 심리적 독립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은 계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죄의식 없이 계모에 대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그후 성장하면서 이러한 모순된 정서를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양가적인 감정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계모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이러한 심리적 독립은 그들이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사악한 계모가 등장하는 『콩쥐팍쥐』와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를 통해 아동은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으로만 가득차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이러한 동화를 통해 아동은 세상 삶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것 뿐 아니라 삶에는 고통과 슬픔, 고난 등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데, 동화는 이러한 깨달음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27]. 즉,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계모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동화에서는 계모가 주인공을 괴롭히고 곤란에 빠뜨리는 등 다양한 사건과 모순들이 담겨있다.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아동은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이를 이겨나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나의 엄마가 동화 속의 계모와 같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계모형 동화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계모에게 학대를 받는 이러한 유형의 동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혼합가정이 더 많은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별다른 반감이 없이 아이들에게 꾸준히 읽혀지고 있으며,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화가 계모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지만,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는 점, 그리고 아동의 정서함양의 도움이 되는 기초교양 도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28] 동화에서 계모는 꼭 필요한 인물이고, 아동에게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결론

동화는 오랜 세월동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사람들의 무의식에 의해서 걸러지고 정선되어서, 쓸모 없는 것들은 모두 제거되어 이야기의 혼만이 남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22]. 이야기의 혼이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의미와 속뜻을 내포한 것이다. 즉, 같은 동화라고 할지라도 동화를 읽는 사람의 심리적, 문화적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모가 등장하며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보이는 동화 두 편,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를 비교 고찰해보았다. 계모가 악인으로 등장하는 두 동화에서 계모들은 자신의 딸과 주인공을 차별하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등 비슷한 성향을 보였지만 이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동화의 내용 전개상, 그리고 아동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스스로 심리적 갈등을 대처할 수 없는 아동이 친부모와 친형제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계모가 등장하는 동화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동화 속 계모에게 투영하고 마음껏 화를 내어 발산함으로써 모순된 정서를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엄마에게 가졌던 분노와 사악한 소망에 대한 죄의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엄마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켜줄 수 있다. 계다가 사악한 계모가 등장하는 동화를 통해 아동은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여, 고통과 슬픔, 고난 등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동화 속에 표현된 억울하고 모순적인 상황들을 통해 자신도 이를 이겨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가 동화 속 계모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행복한 결말을 통해 권선징악의 교훈적 의미를 배우고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악인인 계모가 등장하는 동화는 아동들에게 심리적인 면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12월 11일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30년 사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맞물려 재혼율도 높아졌다[29].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우리 사회에 계모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계모

는 못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엄마가 될 수도 있다[30]. 그리고 어떠한 가정의 유형에 속하는지와 상관없이 계모형 동화는 아동의 심리적인 발달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나쁜 계모'가 아닌 그냥 '계모'로 인식할 수 있는 편견 없는 사회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T. K. Kim, J. E. Lee, H. S. Jo,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iteratu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the post-human era",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38, No.1, pp.417-436, 2018.  
DOI: <http://dx.doi.org/10.18023/kjece.2018.38.1.017>
- [2] J. E. Yoon, "Children's Responses to the Character of Khongchi-Phachi and Cinderella", *Journal of Research Ulsan College*, Vol.26, No.1m pp.225-240, 1999.
- [3] Y. J. Kim, J. H. Jeon, "The children's acknowledgement on the attitude of parenting between the parent and stepparent in the traditional fairytal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Vol.9, No.4, pp.31-51, 2005.
- [4] S. G. Lee, Y. H. Chang, *Early Childhood Literature Theory*, Gyomunsa, 2001, p.310.
- [5] S. J. Jeong, S. E. Kim, O. J. Chung, "Stepmother Images through Analyses of Twitter and News Articles",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Vol.18, No.7, pp.665-678,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7.665>
- [6] Tucker, Nicholas, "The Grimms' Wicked Stepmothers." *Where Text and Children Meet*, Eds. Eve Beame, and Victor Watson, London: Routledge, pp.41-50, 2000.
- [7] Y. H. Chang, "The Comparative Study of <Janghwa and Hongnyun> and <Liyuying's Grievances inprison>", Vol.46, No.-, pp.103-138, 2007.  
DOI: <https://doi.org/10.16873/tkl.2007.46.103>
- [8] S. M. Lim, "Melanie Klein's Psychoanalytic Review of Envy", *Psychoanalytic Psychological Counseling*, Vol.3, No.-, pp.111-141, 2020.
- [9] W. S. Le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a Stepmother Type Novel",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ies*, Vol.17, No.1, pp.127-150, 1985.
- [10] Anna Miller, Claire Cartwright, Kerry Gibson, "Stepmot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the Wicked Stepmother Stereotype", *Journal of Family Issues*, Vol.39, No.7, pp.1984-2006, 2018.  
DOI: <https://doi.org/10.1177/0192513S17739049>
- [11] Minna Murtorinne-Lahtinen, Kimmo Jokinen, "Stepmother's constructions and negotiations of belonging", *Journal*

- of Family Studies*, Vol.26, No.1, 2017.  
DOI: <https://doi.org/10.1080/13229400.2017.1308877>
- [12] Dyah Ayu Nila Khrisna, "The Fairy Tales' Stepmothers: They are not Evil, They are just Insecure(Portraying the Character of Cinderella, Hansel and Gretel, and SnowWhite's Stepmothers from the Appraisal Framework)",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pp.1-13, 2020.  
DOI: <http://dx.doi.org/10.4108/eai.8-9-2020.2301319>
- [13] Y. G. Lee, *The Study of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In Conncection with a Stepmother Tale*, Ph.D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nguage and Literature, pp.1-195, 2004.
- [14] J. E. Yoon, "Children's Responses to the Character of Khongchi-Phachi and Cinderella", *Ulsan College Journal of Research*, Vol.26, No.1, pp.225-240, 1999.
- [15] H. S. Cho, S. H. Seok, "A Comparision of Kong-gui Pat-gui with Cinderella", *Child Educare Research*, Vol.9, No.-, pp.1-14, 2003.
- [16] E. H. Ha, "A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the Meaning of Litory Therapy in <Kongjwi Patjwi>-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ypes of Cinderella in East Asia", *Journal of Humanities*, Vol.28, No.-, pp.59-86, 2014.
- [17] S. H. Hong, "Gender issue and the new female Potential in the Korean Cinderella Story 『Konggyu Patgyu』", *The Language and Culture*, Vol.6, No.1, pp.309-329, 2010.
- [18] J. I. Park, "The Repression Structure and Ecological Story Principle in Stepmother Stories, and the Emotional Process of Recovering Pleasure", *Oral Literature Research*, Vol.0, No.58, pp.67-100, 2020.  
DOI: <http://dx.doi.org/10.22274/KORALIT.2020.58.002>
- [19] U. S. Choi, *Korean Old Novel Studies*, Keimyung Culture Publishing, 1997, p.480.
- [20] G. C.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Khongiwiphatjwi and Cinderel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 Literature*, Vol.8, No.-, pp.135-158, 1987.
- [21] O. H. Lim, H. S. Cho, M. R. Sung, *Feminism and Psychoanalysis*, Institute for Women's Culture Theory, p.384, 2003.
- [22] H. Y. Kim, *Fairy Tale, The Growth of the Soul*, Chaeryun, p.344, 2016.
- [23] Bruno Bettelheim. Translated by O. S. Kim and O. Choo, *The Charm of the Old Stories 1, 2*, Sigonsa, 1998, p.114.  
DOI: <https://doi.org/10.1080/00131727809336327>
- [24] H. G. Kim, *The Charm of a Masterpiece Fairy Tale*, Gyomunsa, 1992. p.624.
- [25] M. Y. Yoon, "A Study on the Utility as a Traditional Fairy Tale through Understanding Stepmother Formation", *Taereung Language Studies*, Vol.12 No.-, pp.143-152, 2005.
- [26] G. Y. Lee, "A Comparison between "The Three Graves" and Snow Whi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edipus Conflict", *The Junga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52, No.4, pp.285-301, 2010.  
DOI: <https://doi.org/10.18853/ijell.2010.52.4.014>
- [27] G. S. Ko, "The meaning and effect of cruelty in trational fairy tales", *Classical Literature and Education*, Vol.3, No.-, pp.5-20, 2001.
- [28] I. S. Kong, A. J. Yoo, "The Traditional Fairy Tales and the Judgement of Prejudice Formation: Snow White, Kongjui Patjui, and Changwah Honglyunjeon" *Th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2, No.1, pp.1-10, 1994.
- [29] Statistics Korea, "Korean Society Trends", Department of Social Statistics Planning, 2020.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 ex.board?bmode=read&aSeq=386561](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 ex.board?bmode=read&aSeq=386561) (accessed Mar. 12, 2021)
- [30] G. H. Ban, "Is the stepmother a bad person?", *Psychiatric Newspaper*, 2021. Available From: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 ?idxno=22308> (accessed Mar. 11, 2021).

## 류 다 영(Da-Young Ryu)

[중신회원]



- 2000년 2월 : 성균관 대학교 교육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희곡, 영어교육, 문학과 치유, 문학과 젠더